



양돈경영에 있어 분개와 전기



권 오 옥 박사
(영남대학교 축산경영학과 교수)

1. 분개(分介)의 의의

양돈경영에서의 거래는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거래를 각 계정계좌에 직접적으로 기입하게 되면 오류나 누락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계정기입의 준비단계로서 거래를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분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각종 거래를 차변요소와 대변요소로 분해하여 계정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분개라 한다. 또한 분개는 장부기입의 최초의 출발점이 되며 거래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거래가 차변과 대변으로 분리·대립되는 것은 거래 8요소에서 설명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이 양측면으로 분해된 거래사항 중 어떠한 것을 차변에 기입하고, 어느 것을 대변에 기입하는가는 부기계산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이며 복식부기에서는 이 분개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축산경영체를 올바르게 경영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다.

분개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기상의 거래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계정과목을 결정한다.

셋째: 차변과목과 대변과목을 결정한다.

넷째: 금액을 결정하고 차대변을 일치시킨다.

2. 분개의 법칙

분개는 거래를 계정으로 분리하여 각 계정계좌에 집합시키기 위한 수단이므로 분개를 할 때 어느 계정을 차변에 두고, 어느 계정을 대변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을 분개의 법칙이라 한다. 따라서 한 건의 거래라도 분개를 정확하게 못하면 결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개에 대한 법칙을 잘 이행하여야 한다.

분개의 기본법칙은 거래의 8요소인 것이다.

이는 대차대조표 방정식인 자산(A)=부채(P)+자본(K)에서 유도된 것이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방정식만 기억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대차대조표 방정식을 계정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차대조표	
차 변	대 변
+ A	+ P
	+ K
<u>계</u>	<u>계</u>

대차대조표의 좌변에 있는 자산은 +A로서 차변에 기입하고 우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은 +P, +K로서 대변에 기입한다.

이와 반대로 -A는 대변에, -P, -K는 차변에 기입한다.

그리고 손익거래에 있어 +V(비용)는 차변, +G(수익)는 대변에 기입한다.

그 이유는 비용의 발생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고, 수익의 발생은 자본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분개의 법칙은 결국 계정기입의 원칙과 일치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산(A)의 증가는 차변에, 감소는 대변에.

둘째: 부채(P)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셋째: 자본(K)의 증가는 대변에, 감소는 차변에.

넷째: 수익(G)의 발생(증가)은 대변에, 소멸(감소)은 차변에.

다섯째: 비용(V)의 발생(증가)은 차변에, 소멸(감소)은 대변에.

또한 이를 계정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산계정	부채계정
+ A - A	- P + P
자본계정	부채계정
- K + K	+ G
자본계정	
+ V	

〈예를 들면〉

〈예 1〉 현금 ₩1,600,000을 지급하고 경운기를 구입하다.

— 〈분 석〉 —

- (i) 계정→현금·대농기계(둘다 자산계정)
- (ii) 기록할 변→현금의 감소(자산의 감소)
→대변
대농기계의 증가(자산의 증가)
→차변
- (iii) 금액→대차평균으로 동일 금액(₩1,600,000)

〈분개〉(차) 대농기계 1,600,000 (대) 현금 1,600,000

〈예 2〉 사료 ₩1,000,000을 구입하고, 대금의 반은 현금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분 석〉

- (i)계정→사료·현금(자산계정), 외상매입금(부채계정)
- (ii)기록할 변→사료의 증가(자산의 증가)→차변
현금의 감소(자산의 감소)→대변
외상매입금의 증가(부채의 증가)→대변
- (iii)금액→사료의 증가 ₩1,000,000
현금의 감소 ₩500,000
외상매입금의 증가 ₩500,000

〈분 개〉

- (차) 사료 1,000,000 (대) 현금 500,000
외상매입금 500,000
- 〈예 3〉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00과 원금 ₩1,000,000을 외상매입금 ₩500,000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다.

〈분 석〉

- (i)계정→현금·대여금(자산계정), 외상매입금(부채계정), 수입이자(수익계정)
- (ii)기록할 변→현금의 증가(자산의 증가)→차변
대여금의 감소(자산의 감소)→대변
외상매입금의 감소(부채의 감소)→차변
이자의 발생(수익의 발생)→대변
- (iii)금액→현금의 증가는 ₩530,000
대여금의 감소는 ₩1,000,000
외상매입금의 감소는 ₩500,000
이자의 발생은 ₩30,000

〈분 개〉

- (차) 현금 530,000 (대) 대여금 1,000,000
외상매입금 500,000 수입이자 30,000

〈예 4〉 대구경북양돈조합에서 ₩1,000,000의 자금을 차입하여 목부의 6월분 노임 ₩600,000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당좌예금하다.

〈분 석〉

- (i)계정→당좌예금(자산계정), 차입금(부채계정), 노임(비용계정)
- (ii)기록할 변→당좌예금의 증가(자산의 증가)→차변
차입금의 증가(부채의 증가)→대변
노임의 발생(비용의 발생)→차변
- (iii)금액→당좌예금의 증가는 ₩400,000
차입금의 증가는 ₩1,000,000
노임의 발생은 ₩600,000

〈분 개〉

- (차) 당좌예금 400,000 (대) 차입금 1,000,000
노 임 600,000

3. 전기(轉記)

양돈부기의 기장절차에 있어서 처음 착수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거래를 분개법칙에 따라 분개장에 분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분개장의 분개된 내용을 계정과 목별로 원장에 옮겨야 한다. 즉, 분개장의 내용을 총계정원장의 계정계좌에 옮기는 절차를 전기라 한다.

전기의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차변에 분개한 계정과목의 금액은 총계정원장의 해당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둘째 : 대변에 분개한 계정과목의 금액은 총계정원장의 해당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셋째 : 적요란에는 각각 반대편의 계정과목을 쓴다.
단, 반대편의 개정과목이 2개이상일 때는 제좌라 기입한다.

〈예를 들면〉

앞의 보기 1, 2, 3, 4의 분개를 각 계정계좌에 전기한 것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분개〉

(예1) (차)대농기계 1,600,000

(대)현 금 1,600,000

(예2) (차)사 료 1,000,000

(대)현 금 500,000

외 상 매 입 금 500,000

(예3) (차)현 금 530,000

외 상 매 입 금 500,000

(대)대 여 금 1,000,000

수 입 이 자 30,000

(예4) (차)당좌예금 400,000

노 임 600,000

(대)차 입 금 1,000,000

〈전기〉

(차) 대 농 기 계 계 정 (대)

현금1,600,000

(차) 현 금 계 정 (대)

제좌 530,000

대농기계 1,600,000

사 료 500,000

(차) 사 료 계 정 (대)

제좌 1,000,000

(차) 외 상 매 입 금 계 정 (대)

제좌 500,000

사료 500,000

(차) 대 여 금 계 정 (대)

제좌 1,000,000

(차) 수 입 이 자 계 정 (대)

제좌 30,000

(차) 당 좌 예 금 계 정 (대)

차입금 400,000

(차) 노 임 계 정 (대)

차입금 600,000

(차) 차 입 금 계 정 (대)

제좌 1,000,000